

농지연금으로 노후 보장 받아야

농어촌공, 올해 200여명 농가 혜택 받는 중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들의 가입 예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고령화의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실제 영농중인 전·담·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 원 이하 농지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최근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으며 올해 200여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된다.

연금 신청은 해당 시·군에 위치한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0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포털(www.fplo.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잘사는 농업인 구현 '맞손'

전북농협, 농업기술원과 치유농업 등 상호협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8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 기술훈련 대응 및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농협은 스마트농업 실습교육장 조성을 추진하고 수출농가 조직화와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힐링체험, 농촌자원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을 위한 항공방제단 지원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을 위해 전북농협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앞장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농업, 잘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박경숙 전북도농업기술원장(사진 왼쪽)과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이 8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회의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식품위생관리 온라인 교육 진행

경진원, 14일·28일

전북도와 전북경제성장지원센터(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가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오는 14일과 28일 이틀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스코와 함께하는 식품위생 관리교육'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진원은 매년 연간 20회 이상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료교육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시·군 현장교육 16회, 실시간 온라인 교육 4회를 진행했다.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일부 식당에서 벌어진 식중독 사고를 비롯한 각종 위생사고를 예방하고자 준비했다. 위생전문기업인 (주)세스코의 식품안전 전문

가를 초빙해 식품위생 수칙과 위생관리 기준, 현장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요식업 종사자들도 사업장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온택트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위생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1588-07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태 기자

전 세계에서 수집한 가지과 우수자원 선발

농진청, 현장평가회 개최... 식품 기능성 소재로 활용

농진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전 세계에서 수집한 가지과 유전자원 중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과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현장평가회에서는 헝가리, 볼리비아, 브라질 등 47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존·관리하는 가지 346개 자원과 한국이 원산인 고추 372개 자원이 평가된다.

또한 매운맛(캡사이신) 함량이 높고 고춧가루 색이 선명한 고품질 고추자원, 탄저병, 역병, 세균상관잡병 등 병 저항성이 있는 우수 고추 56개 자원이도 선정된다.

현장평가회에서는 종자회사, 식품가공회사, 농진청, 대학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원의 생육, 형태,

내병성 등 산업적 형질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선발된 자원들은 육종이나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분양한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진청청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세앗은행, genebank.rda.go.kr)에서 분양신청서, 자원목록,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매년 현장평가회를 통해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우수한 자원을 소개하고 활용토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에서 선발된 유전자원은 6개 기관에 115개 자원이 분양됐다.

농진청청 이주희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이번 현장평가회가 가지과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육종 활성화를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공개한 자

원들이 품종 육성과 식품·생명산업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일 김제 축산면 대청어촌계에서 수협중앙회,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 임직원 50여 명과 함께 어촌마을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금 500만원의 전달식을 가졌다.

안전 어촌환경 조성 협력 본격화

전기안전공, 전국 9개 어촌계와 자매결연 맺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어촌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나섰다.

공사는 8일 김제 축산면 대청어촌계에서 수협중앙회,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 임직원 50여 명과 함께 어촌마을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금 500만 원의 전달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는 지난 5월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와 어촌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도시·어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후속조

치다.

공사는 협약을 통해, 전국 9개 사업소와 지역어촌계 간 자매결연을 맺고, 전기시설 안전점검, 노후시설 교체 등 재난기부 활동을 펼치는 한편, 어촌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4,50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우리 공사만이 할 수 있는 재난기부 사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농·축협은 수시 자체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역본부에서는 20개소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지도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특별상황실도 운영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판매장(가공장) 위생·청결상태, 원산지 표시, 냉동·냉장육 보관 및 관리상태, 식육 표시기준 준수여부, 쇠고기 이력제 관리,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및 교육 등이며, 출입자 명부작성과 작업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은 "추석 대비 축산물 위생 점검은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조치 활동으로 전북농협은 안전한 축산물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명절기간 한우, 한돈 등 우리 축산물의 많은 애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045 탄소중립 선언... 현대차, 'IAA 모빌리티' 참가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이 핵심

현대차가 친환경 기술 바탕의 차별화된 기후변화 대응으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현대차는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보도발표회에서 자동차 생산부터 운송,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순배출이란 전체 배출량에서 제거 또는 흡수된 양을 차감한 실질적인 배출량을 뜻한다.

2045년 탄소중립' 구상의 핵심은 ▲클린 모빌리티(Clean Mobility) ▲차세대

이동 플랫폼(Next-generation Platform) ▲그린 에너지(Green Energy)를 축으로 한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이다.

전동화 역량의 지속적인 확대는 물론 에너지 전환 및 혁신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미래 세대이자 탄소중립의 시대를 살아갈 첫 번째 세대인 '제너레이션 원(Generation One)'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긴다는 것이 현대차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2040년까지 차량 운행, 공급망(협력사), 사업장(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75% 줄이고 이보다 불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

술) 등을 도입해 2045년까지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정재호 사장은 IAA 보도발표회에서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비전 아래 세상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자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이며, 전 인류의 각별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사장은 "2045년까지 제품과 사업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솔루션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주=이종복기자

전북은행, 대학생 메타버스 서포터즈 발대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7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타타운'을 통해 '대학생 서포터즈' 이하 서포터즈) 발대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MZ세대와 더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게이머들은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참여한다는 점은 같지만 편리한 협업과 얼굴을 보며 실시간 화상 대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발대식은 게이머들 내에 구현

된 전북은행 행사장에서 서한국 은행장과 서포터즈 학생들이 각자 개성 넘치는 캐릭터는 물론 화상으로도 대화를 나눴으며, 향후 일정 안내 및 OX퀴즈를 포함한 미니게임 등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여 동안 팀별 과제 수행을 통해 은행과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서포터즈를 주축으로 자여 및 고객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